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학관 체험을 통한 문학 교육 연구

- 김수영문학관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전공

김 정 민

문학관 체험을 통한 문학 교육 연구

- 김수영문학관을 중심으로 -

김 명 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전공

김 정 민

인 준 서

김정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부응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관 체험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구안해보고, 김수영문학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교육에서 물려받은 고정화되고 관습화된 교사 중심, 결과 중심, 텍스트 중심의 교육 틀은 새로운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과 괴리되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는 문학이 근본적으로 인간정신을 탐구하는 학문이자 역동적인 예술행위라는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문학을 구성하는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을 우선시한 교육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참여와 능동적인 의미 구성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정태적(情態的) 문학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학교육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장체험활동에 주목하였다. 이 교육 방법은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의 현상이나 사회적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현장에서의 답사활동을 통한 교육방법이다. 교실 내의 학습과 교실 밖의 실제 생활, 학교와 공동체, 개인과 사회의 괴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방법으로 직접 체험을 통한 지식의 재창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장답사활동의 공간을 문학관으로 상정하고 학습자의 직접 체험

을 유도하는 김수영문학관을 중심으로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개진하였다.

체험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을 설정하여 각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학생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누적되어 있는 관람객의 글을 분석하였다. 이 중 대표적 사례들을 2015년 개정 문학 교육과정과 연결시켜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체험의 교육적 의의와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문학관 답사를 활용한 학습의 단계적 절차를 크게 ‘문학관 답사 전 단계(1, 2)’, ‘문학관 답사 단계’, ‘문학관 답사 후 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절차를 김수영문학관에 적용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학관 체험이 가지는 문학 교육적 의의가 재고되기를 바라며 오감으로 느끼는 문학 체험의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2
II. 문학관 체험을 위한 문학교육의 이론적 배경	11
1.1. 문학관 체험의 교육학적 배경	11
1.2. 문학관 체험의 문학 교육적 의의	12
1.3. 문학관 체험과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	16
1.3.1. 성격	16
1.3.2. 목표와 내용체계	17
III. 문학관의 개념 및 현황	20
1. 문학관의 개념	20
2. 국내 문학관 현황과 유형 분석	22
2.1. 국내 문학관 현황	22
2.2. 국내 문학관 유형 분석	26
3. 김수영문학관의 역사와 현황	30
3.1. 입지조건과 건립배경	30

3.2. 운영 현황과 향후전망	31
3.2.1. 지역관광거점	31
3.2.2. 주민문화시설	32
3.2.3. 연구지원공간	33
3.2.4. 문학박물관	34
3.2.5. 보조교육기관	36
IV. 김수영문학관 체험을 활용한 문학 교수-학습 방안	38
1. 김수영문학관의 교육적 활용	38
1.1. 시작(詩作) 코너	38
1.2. 낭독·녹음실	40
1.3. 감상메모 코너	42
1.4. 원고지쓰기 코너	45
2. 김수영문학관 체험의 수업 모형	48
3. 교수-학습 지도안	51
3.1. 문학관 체험 전 단계 1	52
3.2. 문학관 체험 전 단계 2	53
3.3. 문학관 체험 단계	54
3.4. 문학관 체험 후 단계	56
V. 결론	58

참고문헌	60
Abstract	I

I. 서론

1. 연구 목적

교실 밖에는 배움이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은 자명하다. 교수와 학습은 시·공간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학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를 교실이라는 폐쇄적 공간 안에 위치시키고 입시라는 목표만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교육에서 물려받은 고정화되고 관습화된 교사 중심, 결과 중심, 텍스트 중심의 교육 틀은 새로운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과 괴리되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는 문학이 근본적으로 “인간정신을 탐구하는 학문이자 역동적인 예술행위”¹⁾라는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문학을 구성하는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을 우선시한 교육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참여와 능동적인 의미 구성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정태적 문학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학교육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학관 체험에 주목한다. 교육과정에서 현장 체험 활동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7차 교육과정부터로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다. 현장 체험 학습은 범교과영역에 해당하며 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바탕을 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되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의 4개 영

1) 김수복, 「문학공간 답사와 문학교육」,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p.61.

역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제하고 시간배당은 중학교의 경우 전 학년에 걸쳐 총 306시간을 배정하였다.

이는 중학교 총 3,366시간 중에서 약 9%에 해당하는 시간이며, 고등학교는 총 204단위에서 24단위로, 시간으로 말하면 총 3,468시간 중 408시간으로 11.76%에 해당한다. 이는 20% 이하로 감축 운영할 수 없는 시간으로 되어 있다.

즉, 교과활동만큼 비교과활동이 중시된 것이며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직접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문학관 체험을 통한 활동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문학관 체험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인 현장 체험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이전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문학 작품의 내면화에 이르게 하는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문학관 체험 활동은 체계적인 이론화의 부족,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학 교육에 긍정적인 작용과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부응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관 체험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구안해보고, 김수영문학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선행 연구는 ‘문학관 연구’, ‘문학공간 체험과 교육을 접목시킨 연구’ 순으로 검토하였다. 문학관 연구는 크게 지역 문학관의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문학 진흥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먼저 문학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프랑스 문학관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 김점석·윤학로의 연구에 와서야 본격화 되었다. 이

들은 ‘국내의 문학관 설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문학관 운영에 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²⁾는 주장을 중심으로 국내 문학관에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문학관에 합당한 운영모델을 모색해보려는 취지로서 프랑스 문학관의 현황과 관람객, 문학관 운영의 특징, 전망을 연구한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³⁾의 논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점점 많은 수의 프랑스 문학관들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순수 문학 활동보다는 문화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작가나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문학관 상호 협력망 구축을 위해 문화 기행 루트를 조직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문학관의 발전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학관을 지역 활성화와 지역정체성 확립의 수단이라는 좁은 관점으로 보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다음으로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⁴⁾에서, 김종우·윤학로는 프랑스 문학관의 사례를 통해 설정한 문학관의 다섯 가지 기능(지역관광거점, 보조교육기관, 복합문화공간, 연구지원공간, 문학박물관)이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에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았으며 문화의 지역화와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구어내려는 지방정부의 노력과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춘천과 주변 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김유정문학촌과 연계시켜 춘천지역 전체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평창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전통적인 생활양식, 독특한 자연환

2) 김점석·윤학로, 「프랑스 문학관의 설립 배경과 발전 과정」,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4집, 2005, 165쪽.

3) 김점석·윤학로,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1집, 한국프랑스학회, 2005.

4) 김종우·윤학로,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이효석문학관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서 설정한 문학관의 기능 중 지역 관광거점에 초점을 둔 연구라고 보았다.

또한 「프랑스 문학관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⁵⁾에서는 서구박물관의 역사를 1960년대, 1970-80년대,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관협회가 발간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네 가지 유형(방문, 아틀리에, 전시회, 복합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프랑스에서 문학관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경향은 놀이를 통한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며 두 번째 경향은 놀이를 통한 학습이라는 첫 번째 경향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서, 개별 작가의 작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서 벗어나 문학 언어를 습득하고 깨우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문학관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경기지역 문학관 정책 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경기문화재단의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⁶⁾는 국내 문학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외국의 주요 문학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각종 통계와 자료를 통해 경기지역의 문화 역량을 분석, 확인함과 아울러 경기지역의 문학 지원 현황, 중앙정부의 문학관 정책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문학관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 문학관의 현실적인 위상과 역할, 사회 교육의 장, 문학 향수의 공간,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 장소마케팅의 대상 등 문학관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5) 김종우·윤학로·프랑수아즈 쥘리앙-카자노바, 「프랑스 문학관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한국 프랑스학논집 제55집, 2006.

6) 경기문화재단,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 2006.

문학 진흥 방안에 대한 연구는 유은지의 연구에 이르러 보다 체계화 되었다. 유은지는 「문학관을 활용한 문학 진흥 방안 연구」⁷⁾에서 국내 문학관을 유형별(작가 중심, 작품 중심, 지역 중심, 테마 중심)로 정리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문학관의 설립 취지에 따라 실현 가능한 문학관의 역할로 문학 작품의 재현(미디어의 활용, 축제·이벤트 개최, 주변 경관 조성), 작가 정신 계승(작가 연구, 창작 집필실 제공, 집필 체험), 문학 연구 활동(문학 연구의 중심지, 문학 연구 주제의 범위 확대), 문예 교육 기능(문예교실 운영, 문학 콘텐츠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문학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이정아는 「문학관의 고유가치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유형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⁸⁾에서 문학관의 기능을 학술적 기능, 예술적 기능, 문화적 기능, 지역적 기능(지역인프라 기능, 지역발전의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문학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정도에 따라서 독립형 문학관과의존형 문학관으로, 작가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전문적인가에 따라서 전용형 문학관과 부속형 문학관으로 문학관 운영을 구분하고 있다.

문학관 현황 부분에서는 개관 연대별 문학관 설립현황, 지역별 분포현황, 운영주체별 현황,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른 문학관 유형을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통해 유형별로 특징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문학관의 프로그램 유형을 12가지⁹⁾로 나누어서 전국의 모든 문학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체크하여 분포 상황을 작성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문학관의 목적 및 기능별 유형, 문학관의 운영주체, 문학관의 설립연대,

7) 유은지, 「문학관을 활용한 문학 진흥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7.

8) 이정아, 「문학관의 고유가치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유형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3.

9) 문학축제, 낭독, 강좌 강연 교육, 기획전시, 경영, 체험, 창작집필실, 문학상 시상, 문학캠프, 문학기행, 학술발행, 공연, 기타 등.

문학관의 지역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문학관을 지역의 문화기관으로 위치 짓고 이를 전제로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학관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문학관이 지역 관광산업과 무분별하게 연계된다면 자칫 작가의 문학정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은지의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최근 김종우의 연구¹⁰⁾로 이어지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문학관’에 초점을 맞추어 김점석·윤학로가 설정한 문학관의 다섯 가지 기능(지역관광거점, 보조교육기관, 복합문화공간, 연구지원공간, 문학박물관)을 토대로 김수영문학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학공간 체험과 교육을 접목시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개별 문학관이 아닌 작가의 출생지, 작품 배경지 등 문학공간 전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김수복은 「문학공간 답사와 문학교육」¹¹⁾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문학공간 답사는 이론적 취약성, 지나친 대중성, 행사 진행의 현실적 어려움, 개인적 연구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공간 답사 방법 및 이론적 토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와 체계성을 갖춘 행사가 기획되어야 하며, 행사 진행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직접 문학공간 답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교보재의 개발, 즉 문학공간 답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

10) 김종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문학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8집, 2014.

11) 김수복 편저, 「문학공간 답사와 문학교육」,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문학공간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후속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7차 ‘문학’ 교육 과정에서 ‘문학’ 교과를 중심으로 그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를 고찰하여, 문학공간 답사를 활용한 문학교육의 이론적 접근을 보여 주고 있는 연구에는 홍순창의 「문학공간 답사를 활용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¹²⁾가 있다. 문학공간을 활용한 학습의 일반적 절차를 ‘계획→진단→지도→평가→내면화’ 등의 5단계로 상정하고 이를 다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교수-학습활동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답사의 편의를 위해 문학관이 건립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 답사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시적인 차원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는 연구에는 이시우의 「문학공간 현장체험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¹³⁾가 있다. 연구자는 중학교 국어 교과에 실린 심훈의 『상록수』를 대상으로 실제 문학공간(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의 필경사, 상록수공원)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은 크게 체험 전 활동, 체험 중 활동, 체험 후 활동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학습단계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학관을 문화라는 넓은 범주보다는 문학교육이라는 다소 한정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문학관 답사를 문학교육에 적용하여 수업모형을 설계한 박지훈은 「지역 문학관 답사를 활용한 문학 교수-학습 방안」¹⁴⁾에서 문학제 행사인 ‘김유정 문학제’의 행사내용 중 ‘「봄·봄」, 「동백꽃」의 점순이를 찾습니다’의 내용 요소를 수업현장으로 가져와 1차적인 텍스트 분석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를 파악하고, 김유정 문학관 답사를 통해 문학작품을 학습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문학관의 다양한 콘텐츠 및 활동 공간들

12) 홍순창, 「문학공간 답사를 활용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13) 이시우, 「문학공간 현장체험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심훈의 『상록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4) 박지훈, 「지역 문학관 답사를 활용한 문학 교수-학습 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을 세밀히 문학교육에 접목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수영문학관의 공간, 체험 요소, 프로그램 등을 문학교육과 긴밀히 연결시키려 한다.

그렇다면 왜 김수영문학관인가. 먼저 다음과 같은 김수복의 논의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김수복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학공간 답사 활동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사진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공간 답사 등의 현장학습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참가인원의 교통비며 식비는 물론이고, 일정이 길어질 경우 숙박비도 부담이 되고, 참가인원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도 위험요소가 된다. 특히 아직 성인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공간 답사의 경우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⁵⁾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학교(초·중·고)의 수는 약 11,360여 곳이며 이 중에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의 학교 수는 3,981곳으로 전체의 35%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학생 수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2016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총 1,457,490명 중 239,912명¹⁶⁾이 재학 중인 서울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 내의 문학관에서 체험 활동을 할 때에 앞의 김수복이 주장한 현장 체험 활동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관 체험을 통한 문학 교육이 풍부한 스펙트럼을 갖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학관 10곳을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보

15) 김수복 편저, 앞의 책, 67쪽.

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참조.((<http://kess.kedi.re.kr/>))

았다. 프로그램은 크게 12가지(문학축제, 낭독, 강좌·강연, 기획전시, 경영, 체험, 창작 집필실, 문학상 시상, 문학캠프, 문학기행, 학술발행, 공연)¹⁷⁾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순번	문학관명	프로그램										합계		
		문학축제	낭독	강좌·강연	기획전시	경영	체험	창작집필실	문학상시상	문학캠프	문학기행		학술발행	공연
1	김수영문학관		■	■	■	■	■	■	■	■	■	■	■	9
2	문학의 집 서울	■	■	■	■							■	■	6
3	삼성출판박물관			■	■									2
4	세계여성문학관			■	■									2
5	셋이서문학관			■			■							2
6	영인문학관		■	■	■									3
7	운동주문학관	■				■	■						■	4
8	한국현대문학관		■	■	■									3
9	한국현대시 박물관		■	■	■				■					4
10	한무숙문학관				■	■			■		■	■		5

※ 출처: 한국 문학관 협회 및 각 문학관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

서울에 위치한 문학관 10곳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수영문학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김수영문학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17) 이정아, 앞의 논문. 52~55쪽 참조.

상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서울시 도봉구라는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춘천 지역의 학생들도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국내 문학관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 검토와 1차 문헌 분석, 홈페이지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였고 김수영문학관과 관련된 문헌 조사는 관측에서 배포하는 안내책자, 자체 기록 자료 등을 통해, 현장 조사는 김수영문학관 답사, 운영 담당자와의 면담, 학생 관람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Ⅱ. 문학관 체험을 위한 문학교육의 이론적 배경

1.1. 문학관 체험의 교육학적 배경

교육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학관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교육적 ‘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환경 안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경험을 통한 학습은 현대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영향력을 미친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존 듀이(John Dewey)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학관 체험을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을 근거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듀이는 “참된 교육은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말은 듀이가 교육과 경험을 동일시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듀이에게 있어서 교육은 완전한 경험이다.¹⁸⁾ 교육은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태도를 형성하고,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그들의 생활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성장을 지향한다.

경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고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해보는 것을 경험이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나 기 능도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몸소 겪는 것을 직접경험이라 하고 남을 통해 습득하는 경험을 간접경험이라 한다. 듀이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을 구별하고, 경험 방법의 측면에서 직접경험은 체험

18) 송도선, 「듀이에 있어 체험과 이론 교육의 균형 문제」, 『교육철학연구』, 제 33집, 한국교육철학학회, 2005, 26쪽 참조.

교육과 연결하고 간접경험은 이론 교육과 연결시켰다.

특히 직접경험은 ‘체험’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자신이 어떤 사태에 직접 참여하여 생생하게 얻은 경험을 말한다. 즉 인간이 사물과의 상호 작용 장면에 온몸으로 대면하여 몸소 참여하는 실감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면 ‘절박한 현실감’이나 ‘절감(切感)’과 같은 생생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경험이 생생하다고 하는 것은 경험 과정에서 선행 경험을 동원하여 새로운 환경이나 대상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속적인 경험의 성장을 주장한다는 의미이다.¹⁹⁾

이런 경험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대상물을 직접 조작하거나 만져보는 경험 혹은 체험, 즉 활동, 탐구, 실험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오래 기억되며 필요한 장면 또는 새로운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는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생하고 활기찬 경험은 활발하게 작동하여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적 경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관 체험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인 현장 체험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이전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문학 작품의 내면화에 이르게 한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보았다.

1.2. 문학관 체험의 문학 교육적 의의

그동안 문학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문학교육을 반성하는 한편 학습자들에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학체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학체험’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체

19) 서현정, 「한국문학 학습을 위한 문학공간 현장학습 방안」, 선문대학교 대학원, 2014, 22~24 쪽 참조.

험 혹은 경험에 대한 철학과 이론적 담론이 방대하여 개념의 정립이 쉽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²⁰⁾는 ‘경험’을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감각의 작용 및 내용’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육이나 철학에서는 경험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문학에서는 체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험’이 ‘사람이 주위 환경과 갖는 육체적·정신적 접촉의 총화’이며, ‘문학’은 ‘인간이 세계와 접촉하면서 얻은 체험의 기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학교육을 ‘작품에 담긴 인간의 체험을 독자의 체험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이라 보고, 문학교육의 목표를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總體的) 체험’이라고 규정한다면 문학 작품에 담긴 내용을 독자가 자기 체험으로 충실히 수용하는 것이 교육의 구심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²¹⁾

이러한 논의와, 앞서 살펴본 듀이의 경험 교육론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문학관 체험의 개념을 ‘인간이 문학 공간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 온몸으로 대면하고 참여하는 실감나는 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체험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²²⁾

체험중심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7차 교육과정부터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편성하여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형식적, 파행적 운영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0)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1999.

21)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위의 책, 대교출판, 1999.

22) 박인옥,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전대책 방안 연구」, 『인하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15, 141~142쪽 참조.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은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가르치는 교육’에서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는 교육’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²³⁾

이러한 체험 중심 교육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그 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통해 체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 학생들이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으며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낮은 상황이다.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언·수·과)는 세계 최고(1~2위) 수준(PISA, '09년)이지만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23위(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2년)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3년 5월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국의 3천 2백여 개 중학교에서 약 45만 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임을 의미한다. 자유학기제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전기’²⁴⁾로 활용하려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보면 자유학기제가 비단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23) 박인옥, 앞의 논문, 143쪽.

24)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교육부, 2013.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시행이 추구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적 활동이 우리 문학 교육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학관 체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경험은 대부분 간접경험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교과서 속 텍스트로만 문학 작품을 수용·생산한다. 그러나 교과서 지면으로 시를 읽는 것과, 문학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원고지에 쓰여 있는 시인의 친필 원고를 직접 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또한 작가의 원고뿐 아니라 그들이 남긴 유품과 사진 등을 대하면서, 문학관의 각 공간들을 체험하면서 학습자는 교과서와 교실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생생함과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학습자는 문학 공간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 온몸으로 대면하고 참여하는 실감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관은 전시·관람을 기본적인 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람객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철저한 보안장치 속에 갇힌 낡은 유물의 감상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박물관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문학과와 ‘접촉’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참여’를 태생 조건으로 하는 문학기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테마의 문학관들이 등장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문학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²⁵⁾ 이제 문학교육은 문학관이라는 공간의 체험을 통해 단순히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향유교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시행이 추구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적 활동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5) 이정민, 「문학공간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기행문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23쪽.

고 보았다.

1.3. 문학관 체험과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과를 중심으로 그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를 고찰하여, 문학관 체험이 가지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1.3.1. 성격

‘문학’은 초·중·고 공통 ‘국어’의 문학 영역을 심화·확장한 과목으로, 다양한 문학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작품을 수용·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고 문학에 관한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여 문학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²⁶⁾

문학은 인간의 체험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자 소통 행위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은 문화의 한 양식이다. 학습자는 문학 작품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작품의 수용과 생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문학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자아를 성찰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과 미의식을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세계관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문학’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산된 문학의 제반 양상을 이해하고 향유하며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기초를 다진다. 이를 위하여 문학의 갈래, 문학의 역사, 작품의 수용과 생산 원리를 학습하는 한편 문학의 가치와 미를 느끼고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감상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한다. 아울러, 통합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삶의 질을 높이

26)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문학 영역, 122쪽.

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²⁷⁾

문학 작품과 연관된 공간의 ‘아우라(Aura)’를 체험하는 것은 문학 감상의 본질이며, 문학교육에서 강조하는 타자에 대한 이해는 타자가 놓여 있는 역사적이고 특수한 공간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²⁸⁾ 문학관이라는 공간의 체험은 작가의 인식은 물론 앞서 ‘문학’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살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특정 장소나 공간에 대한 의미부여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 주변의 장소나 공간에 대한 인문적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한다. 이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공간 인식이나 공간 체험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1.3.2. 목표와 내용체계

‘문학’ 교과목의 목표는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르고, 문학의 본질과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타인 및 세계와 소통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문학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²⁹⁾

- 가. 문학의 본질과 가치,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나.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심미적·성찰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27) 교육부, 위의 책, 123쪽.

28) 노홍주, 「문화예술역량 신장을 위한 문학체험 활동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25~27쪽 참조.

29) 교육부, 앞의 책, 123쪽.

위의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⁰⁾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문학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예술 진·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로서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과 세계의 이해 삶의 의미 성찰 정서적·미적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선택하기 맥락 이해하기 몰입하기 보조·참고자료 활용하기 이해·해석하기 감상·비평하기 성찰·향유하기 모방·개작·변용하기 창작하기 공유·소통하기 점검·조정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능력 문학문화 작가와 독자 작품의 내재적·외재적 요소 문학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활동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수용·생산하며 문학문화를 향유하는 행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의 맥락 문학과 인접 분야 작품의 수용과 소통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문학과 매체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 문학사와 역사적 갈래 문학과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은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민족 문화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과 범위 전통과 특질 갈래별 전개와 구원 양상 문학과 시대 상황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한국 문학의 발전상 	
문학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 성찰 타자의 이해와 소통 문학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을 통해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할 때 문학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 성찰, 타자 이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 	

문학관이란 문학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문화시설이자 문학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는 발전 지향적 공간이며 문학에 대한 체험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이러한 문학관의 정의를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과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시설로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학관은 학습자에게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의 맥락, 작품의 수용과 소통에 대한 내용 요소를 제공할 수

30) 교육부, 앞의 책, 124쪽.

있다. 즉 문학의 수용 영역에 해당하는 측면이다.

또한 작가의 삶을 통해 한국 문학의 발전상과 시대 상황을,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에 연결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문학관을 문학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는 발전 지향적 공간으로 보았을 때 학습자가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학에 대한 체험,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은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을 이루어내게 한다. 이것은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소통이 밀받침 되는 부분이며 결국 인간과 세계의 이해, 삶의 의미 성찰, 정서적·미적 고양이라는 문학의 본질 영역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문학관 체험을 통해 ‘문학’ 교육과정의 목표인 문학의 본질과 가치,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대해 이해하며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심미적·성찰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이러한 문학관 체험이 학습자의 내면화를 이끌어 낸다면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Ⅲ. 문학관의 개념 및 현황

1. 문학관의 개념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뜻은 ‘작가(=문학가)의 삶과 창작의 기억과 자취들을 간직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한 작가가 태어났거나 오래도록 또는 일정 기간 살았던 곳에, 그의 작품 활동 중의 유·무형 흔적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문화시설이라는 뜻이다.³¹⁾

한국에 설치된 문학관은 대부분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작가와 작품을 주제로 지역 정서를 잘 표현하는 곳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문학관들은 대부분 작가가 태어나 일정기간 살았던 곳, 집필 활동을 했던 곳이거나 그의 대표작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에 건립되고 유품이나 도서 등을 보존·전시하여 작가의 생애와 업적을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의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문학관들의 대부분이 건립 추진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관람객들의 문학 활동이나 문학관 일대를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복합적 문화공간의 양상³²⁾을 보이고 있으며 신진작가들의 창작 공간 형태로 운영되는 문학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문학관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정아³³⁾는 문학관을 ‘특정 작가, 장르, 작품 속 지명과 연관되어 문학작품의 자료와 자취를 간직하거나, 현재와 미래의 문학작품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문학관은 과거의 유물을 간직하는 등의 한정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발전 지향적 공간의 가능성

31) 경기문화재단,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 2006, 22쪽.

32) 서현정, 앞의 논문, 32~33쪽 참조.

33) 이정아, 「문학관의 고유가치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유형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3, 7쪽.

을 모두 살리는 개념이며 그런 맥락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이라는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문인과 문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학관은 문학 활성화를 이루어 문인들의 활동을 돕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과 관련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이를 통해 문학 고유의 전통과 역사성을 계승하고, 이와 관련한 과거·현재의 문학 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문학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³⁴⁾

문학관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문학관을 ‘작가의 집 Maison d’écrivain’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미셸 플로(Michel Melot)는 1996년에 문화부에 제출한 「작가의 집에 대한 성찰과 제안」 보고서에서 ‘작가의 집은 역사적 건물이나 박물관일 수도 있고 도서관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일 수도 있고 그 중 아무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만큼 문학관이라는 문화시설을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어렵다³⁵⁾는 것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수의 문학관들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순수 문학 활동보다는 문화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아라공문학관 관장인 베르나르 바쇠르(Bernard Vasseur)는 한 보고서에서 문학관을 ‘문학과 독서, 책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촉의 욕구를 출현시키고 신장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대중들에게 열린 모든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쥘 베른(Jules Verne) 문학관 관장 장 폴 드키스(Jean-Paul Dekiss)는 ‘보다 발전된 문화 공간’으로서의 ‘제2세대 문학관’을 주장하며,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정의하고 구분 짓던 시기는 지나가

34) 김진숙,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8쪽.

35) 김점석·윤학로,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1집, 한국프랑스학회, 2005, 415쪽.

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⁶⁾

문학관은 전시·관람을 기본적인 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람객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철저한 보안장치 속에 갇힌 낡은 유물의 감상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박물관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학박물관은 그 소장품의 성격상 애초부터 대중의 참여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학관은 단순히 문화와의 '접촉'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참여'를 태생 조건으로 하는 문화기관인 것이다.³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관이란 문학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문화시설이자 문학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는 발전 지향적 공간이며 문학에 대한 체험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국내 문학관 현황과 유형 분석

2.1. 국내 문학관 현황

2017년 5월 기준으로 국내에 104개의 문학관이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³⁸⁾ 자세한 문학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순번	문학관명	개관년도
서울 (10)	1	김수영문학관	2013
	2	삼성출판박물관	1990
	3	세계여성문학관	2000
	4	영인문학관	2001
	5	한국현대문학관	1997

36) 김점석·윤학로, 앞의 논문, 427쪽.

37) 김점석·윤학로, 「아라공 문학관의 운영 사례 연구」, 『프랑스학연구』, 2004, 566쪽.

38) 한국문학관협회의 '2015년 전국 71개 문학관 DB'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지 소개 정보와 전국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6	한국현대시박물관	2007
		7	한무숙문학관	1993
		8	문학의 집·서울	2001
		9	윤동주문학관	2012
		10	셋이서문학관	2015
경기도 (11)		11	조병화문학관	1993
		12	청류재 수목문학관	1993
		13	만해기념관	1998
		14	육필문학관	2003
		15	황순원문학촌	2009
		16	잔아문학박물관	2005
		17	노작 홍사용문학관	2010
		18	강화문학관	2010
		19	한국근대문학관	2013
		20	한국시문학관	1998
		21	박두진문학관	2016
강원도 (14)		22	김삿갓문학관	2003
		23	토지문화관	1999
		24	박경리 문학 공원	1999
		25	박인환문학관	2011
		26	김시습기념관	2008
		27	양구인문학박물관	2012
		28	이외수문학관	2012
		29	백담사 만해마을	2003
		30	월하 이태극문학관	2010
		31	이효석문학관	2002
		32	김동명문학관	2013
		33	한국시집박물관	2015
		34	김유정문학촌	2002
		35	허균·허난설헌기념관	2007
경상도 (31)	경북 (10)	36	지촌문학관	1989
		37	대구문학관	2014
		38	백수문학관	2008
		39	구상문학관	2002
		40	이육사문학관	2004
		41	지훈문학관	2007
		42	흑구문학관	2012
		43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2014
		44	객주문학관	2014

경남 (21)	45	한국수필문학관	2015	
	46	시조문학관	2013	
	47	오영수문학관	2014	
	48	추리문학관	1992	
	49	경남문학관	2001	
	50	이주홍문학관	2002	
	51	이주홍어린이문학관	2011	
	52	청마문학관	2002	
	53	이원수문학관	2003	
	54	평사리문학관	2004	
	55	김달진문학관	2005	
	56	마산문학관	2005	
	57	동리·목월문학관	2006	
	58	요산문학관	2006	
	59	박재삼문학관	2008	
	60	이병주문학관	2008	
	61	김춘수 유품전시관	2008	
	62	지리산문학관	2009	
	63	남해 유배문학관	2010	
	64	박경리기념관	2010	
	65	시조문학관	2013	
66	윤대성극문학관	2015		
전라 도 (19)	전북 (8)	67	미당시문학관	2001
		68	채만식문학관	2001
		69	아리랑문학관	2003
		70	혼불문학관	2004
		71	최명희문학관	2006
		72	신석정문학관	2011
		73	전북문학관	2012
		74	김환태문학관	2012
	전남 (11)	75	한국가사문학관	2000
		76	조태일시문학관	2003
		77	목포문학관	2007
		78	천관문학관	2008
		79	태백산맥문학관	2008
		80	광고문학관	2009
		81	광주 지하철문학관	2009
82		순천만문학관	2010	
83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2010	

		84	강진 시문학과기념관	2012
		85	백호문학관	2013
충청도 (16)	충북 (7)	86	원서문학관	2003
		87	농민문학기념관	2005
		88	오장환문학관	2006
		89	충주문학관	2007
		90	21세기문학관	2012
		91	정지용문학관	2005
		92	포석조명희문학관	2015
	충남 (9)	93	충남문학관	2000
		94	한국시마을문학관	2008
		95	대전문학관	2012
		96	보훈문학관	2012
		97	산사현대시100년관	2013
		98	보령문학관	2013
		99	신동엽문학관	2013
		100	심훈기념관	2014
		101	홍성문학관	2016
제주도 (3)		102	제주 문학의 집	2010
		103	제주 추사관	2010
		104	남훈문학관	2013

<표1> 지역별 문학관 현황

* 자료출처: 한국문학관협회(<http://www.munhakwan.com/>)

한국관광공사 여행포털(<http://korean.visitkorea.or.kr>)

2017년 현재, 국내 문학관의 총수는 104개이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 31개(29.8%)로 가장 많이 건립되었으며 전라도 19개(18.26%), 충청도 16개(15.38%), 강원도 14개(13.46%), 경기도 11개(10.57%), 서울 10개(9.61%), 제주도에 3개(2.88%)의 문학관이 건립되었다.

인구 규모에 비해 서울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학관이 있는 이유는 과거 유명 문인들의 고향이 대부분 지방이고, 집필공간이나 문학 속 배경이 된 곳이 수도권 외 지역이기 때문³⁹⁾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39) 이원태,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09, 9쪽 참조.

경우 문학관이 문학적 관심 이외에 지역 활성화라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보다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89년 지촌문학관을 시작으로 하여 1990년 1개, 1992년 1개, 1993년 3개, 1997년 1개, 1998년 2개, 1999년 2개, 2000년 2개, 2001년 5개, 2002년 6개, 2003년 7개, 2004년 3개, 2005년 5개, 2006년 4개, 2007년 5개, 2008년 8개, 2009년 4개, 2010년 7개, 2011년 5개, 2012년 10개, 2013년 10개, 2014년 5개, 2015년 5개, 2016년 2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전시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학을 활성화시키며 타 지역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고 지역의 문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⁴⁰⁾ 이는 문화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학습자들의 현장 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2. 국내 문학관 유형 분석

다양한 설립 취지를 가지고 건립된 문학관들은 운영 방향이나 그 특징이 다양하다. 국내에 건립된 문학관을 작가 중심, 작품 중심, 지역 중심, 테마 중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개관한 104개의 문학관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2>⁴¹⁾와 같다.

분류	문 학 관	계
작가 중심	김수영문학관, 한무숙문학관, 김삿갓문학관, 김유정문학촌, 백담사 만해마을, 박경리문학공원, 월하이태극문학관, 이효석문	53

40) 서현정, 앞의 논문, 39쪽 참조.

41) 분류과정에서 작가나 작품, 지역 중심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문학관들은 각각의 설립 취지가 별도로 있으므로 테마 중심의 문학관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유형은 유은지(2007:15~19쪽 참조)를 참고하였다.

	학관, 노작홍사용문학관, 만해기념관, 조병화문학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구상문학관, 김달진문학관, 동리·목월문학관, 박재삼문학관, 요산문학관, 이병주문학관, 이원수문학관, 이육사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지훈문학관, 청마문학관, 오영수문학관, 강진시문학파기념관, 미당시문학관, 석정문학관, 채만식문학관, 최명희문학관, 백호문학관, 오장환문학관, 정지용문학관, 신동엽문학관, 원서문학관,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윤동주문학관, 셋이서문학관, 박두진문학관, 박인환문학관, 김시습기념관, 이외수문학관, 김동명문학관, 허균·허난설헌기념관, 흑구문학관, 김춘수 유품전시관, 박경리기념관, 윤대성극문학관, 김환태문학관,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포석조명희문학관, 심훈기념관, 제주 추사관, 남훈문학관	
작품 중심	황순원소나기마을, 이효석문학관, 김유정문학촌, 평사리문학관, 아리랑문학관, 혼불문학관, 태백산맥문학관, 객주문학관	8
지역 중심	경남문학관, 대구문학관, 마산문학관, 지리산문학관, 목포문학관, 순천문학관, 전북문학관, 천관문학관, 대전문학관, 제주문학의 집, 충남문학관, 강진시문학파기념관, 충주문학관, 강화문학관, 양구인문학박물관, 보령문학관, 홍성문학관	17
테마 중심	한국현대문학관, 세계여성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추리문학관, 지촌문학관, 남해유배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 전라북도문학관, 농민문학관, 충남문학관, 산사현대시100년관, 영인문학관, 문학의 집 서울, 청류제수목문학관, 잔아문학박물관, 원서문학관, 육필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한국시문학관, 토지문화관, 한국시집박물관,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한국수필문학관, 시조문학관,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광고문학관, 광주 지하철문학관, 21세기문학관, 한국시마을문학관, 보훈문학관	30

<표2> 문학관 유형별 현황

위 <표 2>에서 분류된 문학관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인들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작가 중심의 문학관에는 김수영문학관, 김유정문학

촌, 이효석문학관, 만해 기념관 등을 비롯하여 약 50여 개이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 문학관은 작가의 생애와 업적, 문학 정신을 기리고 작가 정신을 계승하며 문학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폭넓은 문화 향유, 문학 인구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유형의 문학관들은 대부분 작가의 고향 지역에 설립되어 작가의 생가를 복원하고 유품 등 소장 자료를 전시하며, 추모제와 작가의 이름으로 하는 문학상을 마련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누군가 모아두지 않으면 유실되고 말 작가의 흔적을 보존하고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자칫 단순한 기념관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다. 작가와 관련한 소장 자료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방문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마련되어야 작가의 업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새롭게 인식되고 향유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 중심 문학관은 태백산맥문학관, 평사리문학관, 아리랑문학관, 혼불문학관, 객주문학관 등 8개이다.

이 문학관 유형은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뛰어난 작품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이 지니는 공간성에 중점을 두고 현실의 공간을 기반으로 작품을 복원하는 특성을 지닌다.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실질적인 작품의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황순원문학촌, 이효석문학관, 김유정문학촌은 작품과 작가 정신의 생생한 만남을 목적으로 건립된 문학관이다. 특히 작가의 대표 작품을 위해 공간적 무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현해 놓아 학습자들이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하였다. 평사리문학관은 작가 박경리와 작품 「토지」 외에도 지리산권 작품을 소개하고 한옥체험 숙박시설도 겸비하고 있어 문화 체

힘도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 중심 문학관으로는 경남문학관, 마산문학관, 제주문학의 집 등 17여 개가 있다. 이들 문학관은 지역의 문학을 정리·보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마산문학관은 경남 지역 중에서도 마산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주제인 ‘결핵문학’ 코너를 따로 개설하고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있다. 이는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마산 결핵병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경남 문학관은 경남지역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문학교육, 문학기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지역 문학을 연구하여 향토작가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테마 중심 문학관은 농민문학관, 세계여성문학관, 추리문학관 등 30여 개이다. 이들 문학관은 특정 테마를 갖고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외에는 각기 상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운영 방식도 다양하다.⁴²⁾

이러한 형태의 문학관들은 다양한 과제의 개발이 가능하며 흥미와 관심에 따른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고 문학 교육의 활용 외에도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의 목적을 갖춘 수학여행의 형태로 문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학관이라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현대문학관과 영인 문학관은 문인들의 원고, 초상화, 편지를 비롯해 문인 및 화가들의 부채, 서화, 애장품, 사진, 문방사우 등과 문인들의 육필원고와 초판본 등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희귀 자료를 관람할 수 있고, 부산 해운대구의 추리문학관은 국내 유일의 추리문학 전문 문학관으로서 추리문학의 위상을 알리고 있는 곳이다. 세계여성문학관은 세계 여성 문인들의 자료를 수집,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를 중심으로 한

42) 유은지, 앞의 논문, 17~18쪽 참조.

한국현대시박물관, 산사현대시100년관, 가사문학 계승 보전을 위한 한국가사문학관, 도자기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잔아문학박물관,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애환을 보여주는 농민 문학 중심의 농민문학관, 서울과 지방 문인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된 원서문학관 등이 있다.

이상으로 국내의 문학관들을 작가 중심, 작품 중심, 지역 중심, 테마 중심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최근에 건립된 문학관들은 비록 작가의 이름으로 건립되었더라도 작가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문학 행사를 꾸준히 하는 김유정문학관이나 문학관 위치가 작품의 배경지가 되어 작품 이해의 장이 되는 이효석문학관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곳이 대부분이다.⁴³⁾

그밖에도 행사나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거나 불특정 다수의 작가를 대상으로 개인의 연구·수집 자료를 개방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추어 캠프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문학관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그 성격도 복합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3. 김수영 문학관의 역사와 현황

본 연구에서는 김수영문학관의 입지조건과 건립 배경을 알아보고 ‘지역관광거점’, ‘보조교육기관’, ‘주민문화시설’, ‘연구지원공간’, ‘문학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김수영문학관’의 가치를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김수영문학관의 각 기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3.1. 입지조건과 건립배경

지난 2011년 도봉구는 김수영 시인의 본가와 시비(詩碑) 등이 도봉구에

43) 서현정, 앞의 논문, 39~43쪽 참조.

있고, 시인의 삶과 작품이 도봉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계기로 김수영 시인의 시대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기념하는 문학관의 건립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문학관 건립을 위해 도봉구는 김수영 시인의 유족과 김수영 시인의 작품을 출간해온 출판사 등과 다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 결과 김수영 시인의 동생 김수명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로부터 육필원고와 유품을 기증 받았으며 문학관 건립과정에도 유족들의 참여를 권장하여 도움을 받았다.

국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문화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을 지역문화의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하에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하여 2013년 11월 27일 개관하였다.

3.2. 운영 현황과 향후전망⁴⁴⁾

3.2.1. 지역관광거점

김수영문학관은 ‘지역 고유의 정서를 발굴하여 이를 강하게 묶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관광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첫째, ‘도봉구 역사관광문화벨트’를 들 수 있다. 도봉구 역사관광문화벨트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봉구의 여러 문화시설을 서로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 코스로 개발한 것이다. 주요 9개 시설(함석헌기념관, 돌리뮤지엄, 김수영문학관, 원당샘 공원, 서울시 지정보호수 1호인 방학동 은행나무, 연산군묘,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도봉산 둘레길, 전형필 가옥)에 김수영문학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문화지킴이(문화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44) 김중우·윤학로(2004)는 ①지역관광거점, ②보조교육기관, ③주민문화시설, ④연구지원공간, ⑤문학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김유정 문학촌’과 ‘이효석 문학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김중우·윤학로(2004)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김수영문학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도봉역사문화길 탐방-제7코스 현대사 인물길’이다. 김병로, 송진우, 정인보 선생과 홍명희, 김수영 시인 등 도봉구에서 거주하며 현대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살던 곳을 탐방하며 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회고하는 인물 중심의 역사탐방코스이다. ‘창동역 → 창동초등학교 → 벽초 홍명희 옛집터 → 고하 송진우 옛집터 → 가인 김병로 옛집터 → 위당 정인보 옛집터 → 함석헌 선생 집 → 전태일 열사 옛 집터 → 간송 전형필 가옥 → 계훈제 선생 옛 집터 → 김수영 시인 옛 본가 → 도봉역’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수영문학관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관광 코스를 운영해 나가면서 김수영문학관에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역사 탐방 동아리, 문학 답사 동아리 등 많은 단체 관람객들이 방문하게 되었으며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김수영문학관이 지역관광거점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김수영문학관-김수영 시인의 옛 본가-도봉산에 위치한 김수영 시비’를 연결한 김수영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2.2. 주민문화시설

지역문학관은 지역의 정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을 문학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우는 ‘지역문학관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문학관의 관리나 보존, 더 나아가 문학관 행사의 자원봉사요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문학관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관 운영자는 문학관 자체의 개념과 취지, 문학관 운영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⁴⁵⁾고 말하고 있다.

김수영문학관은 문학과 음악을 접목하여 2015년에 ‘시와 음악이 있는 문학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유명 기타리스트 김광석과 시인 김민홍의 콜라보 공연을 기획하고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과 김수영 문학회 회원인 조금래, 조미선 시인의 김수영 시낭송을 통해 김수영 시인의 감성과 시심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문학콘서트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문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주민들의 주도와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학 강좌도 김수영문학관 4층 강당 대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9건(175명), 2015년 17건(301명), 2016년 19건(38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소규모 발표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⁴⁶⁾는 점에서 보았을 때 김수영문학관은 문학 관련 행사에 치중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뿐만 아닌 다른 영역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2.3. 연구지원공간

김종우, 윤학로는 ‘프랑스에서 작가가 생전에 집필하던 공간이나 소장 도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들을 위한 공간과 도서관을 따로 만들어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학관 내에 도서관을 만들어 작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리하면서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⁴⁷⁾라고 말한다.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프랑스 문학관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해당 작가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지원 공간이 되고자 한다. 지나치게 전시 기능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45) 김종우, 앞의 논문, 265쪽.

46) 김종우, 위의 논문, 266쪽.

47) 김종우·윤학로(2005b),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51집, 420쪽.

문학관은 연구지원공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구지원공간 기능은 일반적으로 작가나 연구자들을 위한 ‘창작집필실’ 운영 및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 세미나 운영 등을 포함한다.⁴⁸⁾

김수영문학관은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 세미나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수 연구회 세미나는 2014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김수영 연구회에 속한 교수 15명이 돌아가면서 소논문을 발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김영수의 문학 세계를 깊이 있게 고찰한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논문집을 발간하여 김영수 문학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예정이다.

작가와 연구자들에게 연구 환경, 창작 집필실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도 구상 중이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집필이나 연구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예는 프랑스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의 경우, ‘작가나 연구자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체류기간 중 한 두 차례 정도 지역주민이나 문학관 관람객들을 상대로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학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⁴⁹⁾

우리나라의 경우 만해마을, 토지문학관 등이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김영수문학관 또한 예산과 시설을 확보하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2.4. 문학박물관

‘소장품을 보유하고 그것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박물관의 가장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보자면, 문학박물관은 문학과 관련된 소장품을 보관한 곳이 될 것이다.⁵⁰⁾

48) 김종우, 앞의 논문, 266쪽.

49) 김종우·윤학로, 앞의 논문, 397쪽.

애초에 문인의 삶과 문학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문학관이 일정 부분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문학관이 박물관의 기능에 만족하고 이를 뛰어넘지 못할 경우 문학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⁵¹⁾

김수영문학관이 훌륭한 문학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관 이전에 대부분 완결되는 하드웨어 구축의 측면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시 기능만이 문학관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충실한 자료수집과 보존 작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전시 대상 작가의 단행본, 대상 작가 관련 정기간행물이나 논문집, 석·박사 학위 논문 등 연구지원 공간으로서 필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뿐 아니라, 대상 작가 관련 레코더, 음반, VHS, CD 등 시청각 자료와 다양한 포스터와 팸플릿 자료, 신문과 잡지 등의 자료들을 총망라해 구비해야 한다.

김수영문학관이 보관하고 있는 김수영 유족 측 기증 자료는 육필원고 179점, 산문 원고 123편, 번역 작품 분철본 43편, 김수영 저서(시, 산문 전집 등) 26권, 김수영 평론집 22권, 사진 115장, 작품 수록 서적 19권, 김수영 문학상 수상시집 35권, 김수영 회고록 32편, 시비 관련 연보 4매, 액자/조각상 4점, 개관 이전(2013년) 기사 스크랩북, 김수영 생활 유물 27점으로 총 630점이며 문학관 내부에 수장고를 설치하여 상설 전시하고 있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적정 환경에서 보존하고 있다. 또한 김수영의 시를 주제로 한 논문집, 평론집 등 김수영 관련 서적 400여 권을 자체 매입하여 총 100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기능에 걸맞은 소장 자료의 충실성은 앞으로 다양한 차원으로 확

50) 김중우·윤학로(2005b), 앞의 논문, 51집, 423쪽.

51) 김중우, 앞의 논문, 267쪽.

대되어야 할 문학관 운영에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학관의 소장품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자 매개체일 뿐이다. 문학관이 문학박물관으로서의 기능에 만족할 경우 운영 프로그램 마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문학박물관의 기능은 목적이 아니라 다른 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⁵²⁾

앞으로 김수영문학관은 소장 자료 중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 도서, 육필 원고, 문인 소장품 등 김수영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상설 전시와 함께 작품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자료들에 대한 기획 전시를 통해 관람객을 확보하고 다변화시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2.5. 보조교육기관

문학관이 인근 지역의 학생을 위한 보조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보조교육기관으로서의 문학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 측에서는 교육적 견지에서 문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학 체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학관 측에서는 안정적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관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 학습 형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문학관이 학생층을 주된 방문객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문학관 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우리나라의 많은 문학관에서는 이미 학생 관람객을 상대로 작가나 작품 설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수영문학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학생

52) 김종우, 위의 논문, 268쪽.

53) 김종우, 앞의 논문, 264~265쪽 참조.

관람객(단체)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학관이 보조교육기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학관과 학교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문학관은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학교교육과 분명한 차별성을 두어 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김종우·윤학로는 ‘보조교육기관으로서의 문학관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문학관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⁵⁴⁾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김수영문학관은 김수영 작품의 분석, 작가의 삶과 관련한 당대의 사회상 읽기, 당대의 다른 작가 작품과의 비교연구 등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학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보조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54) 김종우·윤학로, 앞의 논문, 387쪽.

IV. 김수영문학관 답사를 활용한 문학 교수-학습 방안

1. 김수영문학관의 교육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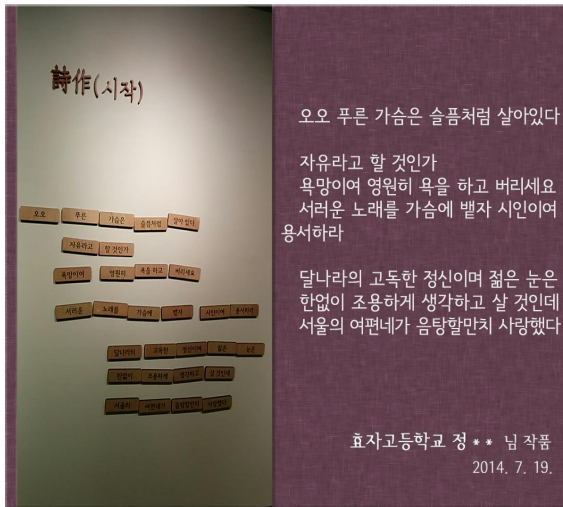
김수영문학관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김수영문학관에서 학습자의 직접 체험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공간을 ‘시작 코너, 낭독·녹음실, 감상메모 코너, 원고지쓰기 코너’로 보고 각 공간의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시작 코너, 낭독·녹음실은 학생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으로, 감상메모 코너, 원고지쓰기 코너는 누적되어 있는 관람객의 글을 분석한다.

셋째, 대표적 사례들을 2015년 개정 문학 교육과정과 연결시켜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체험의 교육적 의의와 효과를 알아본다.

1.1. 시작(詩作) 코너



김수영 시에서 추려진 약 320여 개의 어휘가 막대자석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중앙의 시작 공간에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김수영의 시적 숨결이 담긴 시어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즉석에서 자신만의 시를 만들어 보게 된다.

<시작 코너-효자고등학교 학생 작품>55)

시작이 완성된 작품은 촬영하여 문학관 메일에 전송하면 김수영문학관 홈

55) 김수영문학관 홈페이지 시작 갤러리
(<http://kimsuyoung.dobong.go.kr/community/gallery.asp>)

페이지의 시작 갤러리 코너에 게재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교육에서의 창작은 주로 교실 현장, 교과서의 지면 안에서 이루어진다. 문학관이라는 공간과 자석 막대라는 새로운 재료는 학습자로 하여금 창작이 주는 무거운 이미지를 변모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다음은 시작 코너를 체험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시를 직접 벽에 붙여서 써볼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붙여봤는데도 나름 괜찮은 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시 쓰는 거는 진짜 자신 없는데 이걸 쉬웠어요.

- 창동고등학교 2학년 최한솔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보여서 기다렸는데 애들이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는데 이거 자석 고르는 게 은근 재밌어요. 단어 이것 저것 붙여보고 자리도 바꿔도 보고요. 다른 애들 잘 안 쓴 단어 찾고 싶고 그랬어요.

- 백운중학교 2학년 김석준

인터뷰 내용처럼 ‘시작 코너’는 문학작품 창작이라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학습자에게 시작 과정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시어를 선택, 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시적 언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일깨우게 만든다.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며,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는 능력’⁵⁶⁾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창작품을 김수영문학관 홈페이지의 시작 갤러리 코너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창작을 공유와 소통으로까지 확장시켜 교육할 수 있다. 김수영문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을 이용하는 방안 또한 교육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56)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 성취기준-[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학교 울타리 밖의 세계에 자신의 시를 내보이고 문학 문화에 참여하는 경험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된다.

1.2. 낭독·녹음실



김수영의 시 7편, 「먼 곳에서부터」, 「폭포」, 「푸른 하늘을」, 「거미」, 「눈」, 「풀」, 「사랑」이 탑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직접 낭독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낭독을 녹음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은 문학관 측에서 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음은 낭독 체험을 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시 낭송한 걸 녹음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별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낭송할수록 진지해지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세 번 녹음했어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세미

저는 「풀」 녹음했어요. 아까 벽에 찍어 있던 거 볼 때는 몰랐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뭔가 리듬이 있고 재밌었어요.

- 신방학중학교 2학년 신남호

녹음한 게 제 목소리 안 같아서 좀 이상했어요. 문학관 간다고 해서 좋이

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기계 있어서 신기해요.

- 신방학중학교 2학년 김유선

소리 없이 눈으로만 시를 읽는 요즘 학생들에게 감정을 담아 소리 내어 읽는 시낭송의 경험은 묵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 안의 감정과 운율의 맛을 음미하게 만든다. 눈으로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시의 리듬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오는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서 낭독함으로써 목소리의 높낮이, 성량, 속도 등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으며 작품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학관을 종이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문학관이 체험 중심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체험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⁵⁷⁾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반 시낭송 대회’ 활동이다. 학생들의 낭독 파일을 교실 현장으로 가져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를 전개한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수상작을 가리고 상장 수여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 낭송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낭송 품평회’ 활동이다. 학급 카페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낭송 파일을 공유하고 같은 반 친구들의 낭송을 감상하도록 한다. 낭송에 대해 느낀 점을 댓글을 통해 나누게 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김수영문학관과 연계한 ‘온라인 청소년 시낭송 대회’에 참여하

57)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 성취기준-[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는 활동이 있다. 김수영문학관은 현재 시낭송 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참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조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의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이야말로 김수영문학관과 청소년 체험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3. 감상메모 코너



감상메모 코너는 문학관에 와서 보고 배운 것, 느낀 점 등을 가로 세로 12cm의 작은 메모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는 곳이다. 시작 코너에서 만든 작품을 적거나 김수영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관람객들도 있다. 현 시대에 대한 김수영 시인의 의견을 묻기도 하며 자신도 김수영 시인과 같은 훌륭한 시인이 되겠다는 소망의 글을 남기기도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남긴 감상 메모의 사례이다.

저희 문예부 부장이 “자신의 집 근처에 김수영 시인의 문학관이 있는데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을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볼거리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1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살아왔던 역사를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수영 시인에 관한 영상을 보고 글자가 적혀있는 나무 조각을 이용해 시를 짓기도 하며 시인이 쓴 시를 읽고 녹음하며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김수영 시인이 쓴 시중에 「폭포」와 「풀」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전시되

어있던 시들을 읽어보니 김수영 시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서 더 열심히 둘러보게 된 것도 있고요.

저희 집이 방학동이지만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느라 좀 힘들었는데 그 고생도 잊게 해줄 만큼 여기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 쓰는 대회도 한 번 나가보고 싶었고요. 거기다 시와 더 친해지는 계기를 만든 것 같아 좋았습니다.

- 자운고등학교 2학년 김수정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에 투고해보고 싶다는 학습자의 의견은 김수영문학관이 학습자와 시를 가깝게 만드는 역할뿐만 아니라 문학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다양한 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과 미의식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삶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문학에 관한 태도’⁵⁸⁾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인다.

공교육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문학과 청소년들이 즐기는 일상문학 사이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청소년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교육과 일상문학 등 모든 면에서 청소년들의 문학 생활화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양극을 이루고 있는 공교육과 일상문학이 함께 발전하여 그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문학 생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문학상 제도를 들 수 있다.⁵⁹⁾

그동안 청소년문학상 제도는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창작의 부분을 맡아왔다. 이를 볼 때 청소년문학상 제도가 학교 교육에서의

58)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 성취기준-[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59) 배혜란, 「청소년문학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학상 제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5~6쪽 참조.

문학과 청소년들의 자생적인 일상문학 사이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한다면 청소년문학의 각 영역이 고루 발달할 수 있으며, 진정한 청소년 문학 생활화 및 문학 문화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시 속의 글들을 읽으면서 시인의 진지한 고민과 삶에 대한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자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시’에 대해서 논하는 시인의 깊은 고뇌를 온전히 이해하기엔 어려운 말도, 표현도 많았지만 김수영이란 시인의 생각의 깊이, 진지했던 태도에 대해서는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항상 가벼이 내 감정을 실은 시를 내려쓰며 뿌듯해 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졌다고나 할까.

시대에 대한 저항의 소리가 풀처럼 은은하게 사랑사랑 마음을 간질이는 것 같다. 쉽게 내뱉지만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볍지 않을 관념에 대해 노래한 시인이 멋진 것 같다.

- 창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민지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읽고 내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 또한 이 시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반성도 하게 되었다.

- 금옥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수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인문 정신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어떤 작품을 발표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계속 각성하기를 깨우치고 단독적으로 나아가라고 많은 깨우침을 주셨을 텐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수영 같은 시인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을 갖춰 지금도 그렇지만 김수영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수영문학관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 김수영을 더 알리고 그 정신을 전파하고 기리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김수영문학관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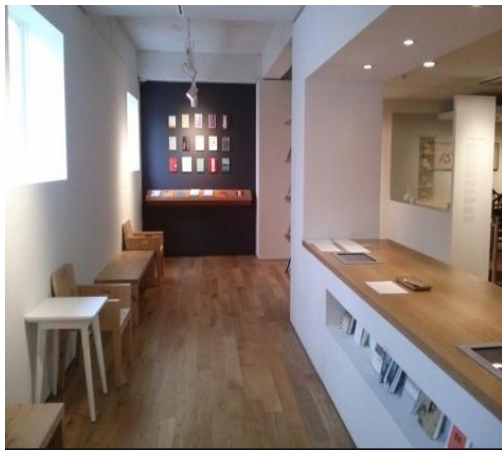
- 경동고등학교 3학년 이관호

학습자들은 시인의 진지한 고민과 삶에 대한 태도를 자신의 삶에 투영하고 있다. 나의 가벼운 감정, 문제의식 없이 사는 삶,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점을 반성하고, 시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자라겠다고 말한다. 문학관 체험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⁶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체험자의 진술은 김수영이 살았던 과거의 역사와 오늘날의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교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민족 문화임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김수영의 시세계는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변모하였다. 김수영문학관의 제1전시실의 원고는 6·25 전쟁, 4·19 민주화 운동, 5·16 군사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역사 교육과 문학 교육의 통합적인 교육이 가능한 접점이라고 여겨진다.

1.4. 원고지쓰기 코너



제2전시실에는 원고지가 비치되어 있어 관람객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유도한다. 감상메모 코너가 짧은 감상을 적는 곳이라면 이 공간에서는 비교적 긴 글을 적을 수 있다. 문학관 측에서 원고지에 댓글을 달아 글쓴 이, 관람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특징이 있다. 문학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기도

60)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 성취기준-[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한다. 또한 원고지라는 재료의 특성상 창작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문학에 관한 질문과 답변 사례이다.

김수영은 왜 시를 지나치게 현실로만 직결시켰나요? 보통의 시인들은 시를 상상에 맡기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 시들은 그래서 읽기 좋았는데 요. 김수영 시는 다소 딱딱했습니다.

↳ 댓글1: 상상이라는 것은 현실이든 비현실이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의 시 역시 상상과 함께 읽을 수도 있겠지요. 그의 시가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 시대를 받아들이는 김수영의 사회비판적 시각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 댓글2: 김수영 시에 딱딱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변주곡」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시란? 문학이란? 예술이란?

↳ 댓글1: 시가, 문학이, 예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면 체계도 꼭 알려주십시오.

↳ 댓글2: 시란, 문학이란, 예술이란 아이온의 시간으로 가는 길목이 아닐까요.

↳ 댓글3: ‘아이온’은 ‘영원한 현재, 계속되는 시간’이라는군요.
몰라서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덕분에 단어(좋은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 댓글4: 시는 쓰는 것이고 문학이란 읽는 것이며 예술이란 행위 하는 것이다!!

김수영 시인의 문학 세계에 대해, 시, 문학,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⁶¹⁾하게 된다. 학습자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보며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

61) 2015 개정 문학 교육과정 성취기준 -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날로그 원고지에 PC 형식의 댓글을 달며 상호 소통할 수 있으며, 문학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인식하는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 방법을 교실 현장으로 가져와 사회의 시사적인 문제, 철학적 담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등 삶과 세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개진하는 것도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원고지에 남긴 창작 작품 사례이다.

<김수영 작가 오행시>

김: 김수영 작가의 삶과 고뇌를 마주하니

수: 수많은 생각들이 가슴을 스친다.

영: 영원한 것은 우리들의 등 뒤에 있나니

작: 작금의 열정으로 마주하리라

가: 가슴 한가운데 당신의 시를 묻습니다.

-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오윤서

<연습>

난 태어날 때부터 연습한다. 태어나는 것은 연습이고, 일 년, 일 년 이것이 모두 연습이다. 난 아직 10번의 연습 밖에 하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몇 번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연습만 하는 것이다. 연습이 다 끝나면 나는 죽겠지. 난 이것을 인생 연습이라고 생각한다. 날마다 1살을 더 먹기 위한 끈기, 노력이 연습의 준비가 된다. 어찌면 내가 연습을 못 하고 죽는 날도 있겠지.

- 초당초등학교 3학년 박현빈

문학을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며, 학습자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 또한 김수영 시인, 삶과 죽음, 현 시단의 문제점 등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다.

오행시, 수필, 비평문, 편지 등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작문 교육과 연결 지어 교수·학습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 소개하는 글, 비평하는 글, 건의하는 글, 정서 표현의 글, 성찰하는 글 등 여러 가지의 작문 원리를 다양한 표현과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수영문학관의 대표적인 체험 공간(시작 코너, 낭독·녹음실, 감상메모 코너, 원고지쓰기 코너)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현장 경험, 참여 후의 소감을 수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문학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분석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김수영문학관의 체험 공간 속에서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르고, 문학의 본질과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타인 및 세계와 소통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문학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학 교육의 목표⁶²⁾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김수영문학관 답사의 수업 모형

앞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관광거점’, ‘주민문화시설’, ‘연구지원공간’, ‘문학 박물관’, ‘보조교육기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김수영문학관의 교육적 활용 가치와 함께 각 체험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62) 교육부, 앞의 책, 122쪽.

이 장에서는 김수영문학관 체험을 활용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살펴본다.

윤상철⁶³⁾은 효과적인 현장학습이 되기 위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 전 단계와 실제 현장학습 단계, 현장학습 후 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현장학습 전 단계: 단원 목표 제시와 사전조사, 학습자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모둠 편성한다.
- ②현장학습 단계: 현장 과제를 수행한다.
- ③현장학습 후 단계: 교실 수행과 정리 및 마무리한다.

손다정⁶⁴⁾ 역시 효과적 현장 체험 수업 방안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교실 사전 학습으로 소그룹편성, 현장체험 계획하기로 구분하고 2단계는 현장체험 단계로 체험과 과제, 대상, 방법, 이유, 자신 알기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발표와 토론 절차를 설정하였다.

조지현⁶⁵⁾과 박지훈⁶⁶⁾의 연구에서는 답사를 활용한 학습의 단계적 절차를 ‘문학 공간 답사의 주제 및 목표설정, 답사 준비, 답사 활동 및 전개, 답사 결과 정리 및 평가, 내면화’ 순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재구성하여 문학관 체험을 활용한 학습

63) 윤상철, 「체험 학습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51~53쪽 참조.

64) 손다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 교육』 제 20 권1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2009, 97쪽.

65) 조지현, 「문학 작품배경 답사와 교육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41~43쪽 참조.

66) 박지훈, 「지역문학관 답사를 활용한 문학 교수-학습 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2, 26~30쪽 참조.

의 단계적 절차를 크게 ‘문학관 체험 전 단계(1, 2)’, ‘문학관 체험 단계’, ‘문학관 체험 후 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절차에 따른 학습자 활동과 교수자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문학관 답사를 활용한 학습의 단계적 절차>

문학관 체험 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주제 및 목표 설정 - 체험 주제 확인 - 체험 목표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주제, 목표 숙지 - 체험 주제의 맥락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목표 제시 - 주제 설정 - 체험 주제 참고 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답사 준비 - 체험 활동 계획 수립 - 체험 준비 활동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활동 계획 수립 - 체험 주제에 대한 참고자료 검색 - 계획에 따라 모듈별로 체험 준비 활동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과정 설계 - 체험 활동 지도 자료 준비 - 체험 활동 준비 과제 제시 - 과제 수행방법 제시
↓				
문학관 체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체험 활동 전개 - 문학관 체험 활동 과제 수행 - 활동에 대한 반성적 고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 (사진, 동영상, 해설사 안내, 문헌조사 등) - 체험 활동 과제별 학습 활동 기술 - 체험에 대한 반성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체험 과정에서 학습자를 안내
↓				
문학관 체험 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체험의 결과 정리 및 평가 - 문학관 체험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체험 과정 정리 및 발표 - 질의 및 응답 - 발표 내용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모듈별 평가 - 발표에 대한 피드백 제공

	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로 결과 보고서 정리 및 수정	-결과 보고서 작성 지도
	• 답사의 내면화 -답사의 일반화 적용	→ -문학관 체험의 결과를 다른 문학 활동 및 생활분야에 적용 -최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학습 결과 내면화하기	-문학관 체험의 경험을 일반화 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추후 과제로 대체 가능)

3. 교수-학습 지도안

앞서 김수영문학관의 대표적인 체험 공간(시작 코너, 낭독·녹음실, 감상 메모 코너, 원고지쓰기 코너)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현장 경험, 참여 후의 소감을 수집하였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문학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분석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문학 교육과정의 목표가 본 수업안의 총체적인 학습 목표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김수영문학관 답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설정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습목표]

- 김수영문학관 체험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이 수업안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는 기존의 교과 수업이 아닌 문학관 체험을 활용하는 수업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수와 학습일수를 제외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답사가 진행

된다고 설정하였다.

3.1. 문학관 체험 전 단계 1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영문학관 체험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단계	문학관 체험의 주제 및 목표 설정	
절차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체험 주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주제와 목표 숙지 - 김수영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주제와 목표 제시
체험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주제의 맥락에 대한 이해 - 김수영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관련된 당시의 시대상과 창작 배경을 알아볼 수 있다. - 문학관 체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영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관련된 당시의 시대상과 창작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문학관 체험의 의의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인지시킨다.
교수·학습 자료	- 김수영 시인의 생애 및 작품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여주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흥미를 가지게 한다.	

문학관 체험 전 단계 1은 체험 주제 확인과 체험 목표 설정의 절차로 나뉘는데, 각각의 절차에 따라 학습자 활동과 교수 활동도 함께 제시한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험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3.2. 문학관 체험 전 단계 2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영문학관 체험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단계	문학관 체험 준비	
절차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체험 활동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활동 계획 수립 - 정해진 주제와 목표에 따라 체험 활동 계획을 세운다. - 모둠을 편성한다. - 나누어진 모둠별로 체험 활동 계획을 세우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역할을 나눈다. ▶ 체험을 위한 참고 자료를 검색·조사·수집한다. - 김수영문학관 홈페이지 (http://kimsuyoung.dobong.go.kr/intro.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과정 설계 - 주제에 맞는 학습 사이트를 검색한다. - 체험 활동 범위를 선정한다. - 모둠별 역할을 정하도록 지도한다. ▶ 문학관 체험을 위한 자료 준비 - 관련 사이트 중에서 적합한 사이트를 선정, 안내한다.
답사 준비 활동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체험 과정에서 수행할 과제 해결을 위하여 모둠별로 사전 준비를 한다. - 학습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체험과 모둠별 준비 과제 수행에 대해 안내한다. - 사전 자료 조사의 필요성을

	수집한다.	설명하고 효과적인 문학관 체험을 위해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자료	-모둠별 활동 계획표	
주의사항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게 한다. -교실에서 체험 활동 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인 교실 밖 활동을 진행함을 알린다.	

문학관 체험 전 단계 2는 설정된 주제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문학관 체험 계획을 세우며, 모둠을 정하여 문학관 체험의 과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체험 계획과 준비가 소홀하면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인식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체험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며 일정을 협의해 가는 동안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접하게 된다.

3.3. 문학관 체험 단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영문학관 체험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단계	문학관 체험의 전개	
절차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문학관 체험 전개	▶ 모둠별 활동 계획표에 따라 ‘시작 코너, 낭독·녹음실, 감상메모 코너, 원고지	▶ 문학관 체험 활동 진행 안내

	<p>쓰기 코너'를 중심으로 문학관을 체험한다.</p> <p>-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활동 자료를 수집한다(사진, 낭독파일, 동영상, 해설사 안내, 문헌조사 등).</p>	<p>-체험 활동의 진행상을 유의점을 안내한다.</p> <p>-체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p>
<p>문학관 체험 과제 수행</p>	<p>▶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체험의 학습 내용을 활동 기록장에 기록한다.</p> <p>- 체험 진행 중 모둠별 갈등 및 과제 해결에 어려움이 생길 시, 즉시 교사의 도움을 요청한다.</p> <p>- 체험 활동 시 개선할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p>	<p>-체험 활동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p>
<p>교수·학습 자료</p>	<p>-모둠별 활동 계획표 및 활동 기록장</p>	
<p>주의사항</p>	<p>-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들에게 조언이 가능하도록 교수자는 상시 대기한다.</p> <p>-학습 결과물에 대한 지나친 요구나 학습 진행에 대한 간섭은 자제하도록 한다.</p>	

본격적인 문학관 체험 단계이다. 앞의 준비 단계와 마찬가지로 활동의 주체는 학습자임을 인식하고 학습자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교과 수업 시간에 보충자료 및 활동자료로 쓰이게 됨을 인지시켜, 자칫 과제로 취급될 수 있는 활동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수자는 문학관 체험이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위한 것임을 항상 숙지하며 학습 결과물에 대한 지나친 요구나 학습 진행에 대한 간섭은 자제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전문 해설사의 설명이 함께 어우러져 학습자들이 지식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험 활동이 수업의 연장이 되도록 하며 모둠원 각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3.4. 문학관 체험 후 단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영문학관 체험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단계	문학관 체험의 결과 정리 및 평가와 내면화	
절차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문학관 체험의 결과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체험의 결과물을 모으고 정리한다. ▶ 발표할 내용을 토의를 통해 선정한다. ▶ 모둠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한다. ▶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질의응답과 피드백 내용을 근거로 결과 보고서를 정리 및 수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물 정리 방법, 발표 내용 선정 방법을 안내하고 제시한 양식에 맞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모둠별 상호평가를 진행한다. ▶ 학습자들의 발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문학관 답사의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의 결과를 다른 문학 활동, 문학 공간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모둠원들 간에 협의된 최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문학관 체험에 대한 총평과 소감을 나누며 이를 통해 내면화를 이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체험 전반에 관한 총평과 소감을 나누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자료	-모듬별 결과 보고서
주의사항	-보고서 작성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법을 설명한다. 이때 모 듬별로 문학관 체험 결과에 따라 변형하거나 응용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학습을 마치고 학습자 스스로 꾸준히 문학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수자는 내면화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문학관 체험 후 단계는 정리 및 평가 단계와 내면화 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정리 및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김수영문학관을 통해 체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모듬별 발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학습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내면화 단계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관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경험을 확대하여 다른 학습 활동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문학관 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김수영문학관 광고 만들기, 김수영문학관 신문 만들기, 도봉구 UCC 대회 참가, 김수영 청소년문학상 투고 등의 활동을 제안해 본다.

V.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부응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관 체험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구안해보고, 김수영문학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존 듀이의 경험 교육론을 통해 체험 중심 교육의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문학관 체험이 사회적, 제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요구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학 교육적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5년 개정 ‘문학’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를 문학관 체험과 연결시켜 분석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확고히 하였다.

III장에서는 문학관의 개념을 살펴보고 문학관이란 ‘문학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문화시설이자 문학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는 발전 지향적 공간이며 문학에 대한 체험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 문학관 현황과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김수영문학관의 역사와 현황 연구를 통해 입지조건과 건립 배경을 알아보고 ‘지역관광거점’, ‘보조교육기관’, ‘주민문화시설’, ‘연구지원공간’, ‘문학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김수영문학관’의 가치를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수영문학관의 각 기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IV장에서는 김수영문학관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김수영문학관에서 학습자의 직접 체험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공간을 ‘시작 코너, 낭독·녹음실, 감상메모 코너, 원고지쓰기 코너’로 보고 각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시작 코너, 낭독·녹음실은 학생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으로, 감상 메모 코너, 원고지쓰기 코너는 누적되어 있는 관람객의 글을 분석하였다.

셋째, 대표적 사례들을 2015년 개정 문학 교육과정과 연결시켜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체험의 교육적 의의와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김수영문학관 체험을 활용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구성하였다.

문학관 체험을 활용한 학습의 단계적 절차를 크게 ‘문학관 체험 전 단계(1, 2)’, ‘문학관 체험 단계’, ‘문학관 체험 후 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절차에 따른 학습자 활동과 교수자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학습안을 실제 학습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과 분석의 결과를 얻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문학관 체험을 통한 문학 교수-학습 연구, 학습자의 직접 체험이 이루어지는 교실 밖의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교육부, 2017.
-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교육부, 2013.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17.
- 김수복, 「문학공간 답사와 문학교육」,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1999.
- 성은모,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2. 학술지 논문

- 경기문화재단,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 2006.
- 김점석·윤학로, 「아라공 문학관의 운영 사례 연구」, 『프랑스학연구』, 2004.
- 김점석·윤학로, 「프랑스 문학관의 설립 배경과 발전 과정」,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4집, 2005.
- 김점석·윤학로,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1집, 한국프랑스학회, 2005.
- 김종우,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문학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8집, 2014.
- 김종우·윤학로,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김종우·윤학로·프랑수아즈 질리앙-카자노바, 「프랑스 문학관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5집, 2006.

박인옥,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전대책 방안 연구」, 『인하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15.

손다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 교육』 제 20 권1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2009.

송도선, 「듀이에 있어 체험과 이론 교육의 균형 문제」, 『교육철학』 제33집, 2005.

신동희, 김희경, 「사용자 경험 기반 스토리두잉의 작동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집, 2015.

3. 학위 논문

김수연, 「문학관 관람객의 유형화를 통한 이용행태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정훈, 「김남천 문학관의 문학 교육적 가능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진숙,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진완,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방법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창호, 「문학공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노홍주, 「문화예술역량 신장을 위한 문학체험 활동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라운지, 「한국 근현대문학의 가치 계승을 위한 문학관 운영 방안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박지훈, 「지역문학관 답사를 활용한 문학 교수-학습 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배혜란, 「청소년문학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학상 제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서현정, 「한국문학 학습을 위한 문학공간 현장학습 방안」,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서효봉, 「현장답사활동을 활용한 「무녀도」 교육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유은지, 「문학관을 활용한 문학 진흥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상철, 「체험 학습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수연, 「이상 문학관 계획」,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시우, 「문학공간 현장체험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심훈의 『상록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정민, 「문학공간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기행문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정아, 「문학관의 고유가치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유형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전일연, 「인물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서지, 「문학관과 문학기록의 현황 및 활용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

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조지현, 「문학 작품배경 답사와 교육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6.

현유리안나, 「문학공간을 활용한 내면화 전략」,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2.

홍순창, 「문학공간 답사를 활용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 기타

이원태,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09.

김수영문학관 홈페이지 시작 갤러리:

<http://kimsuyoung.dobong.go.kr/community/gallery.asp>

전국 지자체별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2016년 11월 기준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지 소개

정보: <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www.kess.kedi.re.kr

한국문학관협회, 2015년 전국 71개 문학관 DB: www.munhakwan.com

ABSTRACT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literary museum

- Focused on the Kim Su-Young Literary Museum -

Kim, Jeong-Mi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the school site in response to social and institutional changes, we inquired into the class model using the experience of the literary museum, I would like to present it.

Focusing on the teachers who have been immersed in the past education, the results-oriented and text-centered education frameworks have diverged from the reality that the new generation is experiencing, This is because the literature was fundamentally a discipline that explored the human spirit and did not properly recognize the aspects of the dynamical arts.

Particularly, since it is impossible to properly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er-work-reader" constituting literature and emphasis on education that prioritizes the analysis of the work itself, participation of

learners and constructing an active meaning. In order to improve the actuality of education in these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get out of the traditional static (emotional) literature education and to have a variety of activity-centered classes for learners. Literacy education methods need to be changed.

In order to do this, in this study, we paid attention to on-site survey activities, which are based on survey activities on the spot where the natural phenomena and social facts are clearly expressed from the classroom. It is an educational method that has the potential to eliminate the divergence between classroom learning, outside of classroom, actual life, school, community, and individual and society, and knowledge through actual experience. The goal is to re-create.

We have proposed the study of educational use centering on the Kim Su-Young Literary Museum, which guides the experience of the learners to the Literature Hall in the space of these on-site activities.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ith the students who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and the messages of the accumulated visitors in this space by setting up a typical space where the experiment will take place. We examined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effects of experiencing in each space by linking it with the revised literacy curriculum.

In addition, the step-by-step procedures for studying using the Literary Museum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floor (1, 2) of studying the Literary Hall", the "Literature Hall", and the "The procedure" was applied to the Kim Su-young Literature Museum, and a concrete

teaching-learning guidance plan was formed accordingly.

We hope that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education held by the literature museum will be preserved through this research, and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e utilization of the literary experience that feels like a five senses.